

소통으로 일하는 개발자 | 서현웅



Contact Me

Email. sddsk1123@gmail.com

Phone. 010-4913-3152

My Channel

Blog. <https://velog.io/@sddsk>

GitHub. <https://github.com/hyunwung>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소통으로 일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서현웅입니다. 웹 개발은 비기너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발을 할 때 엔도르핀이 활성화됩니다 !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만한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진행하는데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처음 보는 타인과 친해지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경력

- 파워젠 (2020.11.10 ~ 2021.10.14) [11개월]
 - RPA 개발
 - 세부 내용 : AA(Automation Anywhere)라는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정형화되어 있는 업무를 자동화
 - OCR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 세부 내용 : 회사에서 개발한 OC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개발하고 유지보수 및 예외처리를 담당
 - 사용한 언어 : Python

교육

- 항해99 (2022.07.04 ~ 2022.10.14) 웹개발 프론트엔드 수료
- 동원대학교 (2017.03.02 ~ 2021.02.22) [정보통신전공] 학점 3.74 졸업

프로젝트

<https://hyunwung.github.io/portfolio-WebSite>

기술 스택

FrontEnd

- HTML5, CSS(SCSS), JS(ES6)
- React
- Redux(React-toolkit)
- Git
- Visual Studio Code, PyCharm

Other

- Python

DevOps

- AWS EC2, CloudFront, Router 53, RDS

자기소개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싶은 이유

- 즐길 줄 아는 사람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 더 나아가 그것을 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저는 개발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자신과 맞는다고 생각하는 일을 굉장히 빨리 찾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즐기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듯이 말이죠.

- 동료와의 신뢰

팀원들의 **신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서로 **지탱**하고 알려주고 **보완**해 줬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에게 [지지](#)를 얻었습니다.

목표, 이상향

큰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프론트엔드 개발 경험뿐이지만 언젠가 풀 스택 개발자, 더 나아가 전반적인 기술 스택들과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의 **통달**하는 것 입니다. **한 우물만 파는 것 이 아닌 발을 넓히고 식견을 넓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널리 알려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더 좋은 경험을 쌓게 될 것 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임하면 회사의 기술 책임자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당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며 백엔드 스택 대한 이해도를 쌓으며, 다음 사이드 프로젝트를 백엔드로 참여해보고 풀 스택 개발자가 되는 것 입니다.

장점 및 특기

첫 번째로 저는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것에 대한 강한 대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무덤덤하게 납득 하는데 능합니다.** 이 부분은 멘탈이 좋고 공감능력이 좋은 부분과 별도 라고 생각합니다. 후천적으로 스스로 컨디셔닝을 한 것이 아닌 선천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직장내 존재하는 위계 질서와 팀 내에 분위기를 읽고 분위기를 읽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 부분 또한 **강점** 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학습한 결과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제대로 컨디셔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의외로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료나 상사나 부하직원이나 “이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은 실례가 되겠지” 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화력 입니다. 위에서 “**소통으로 일하는 개발자**” 라고 저를 소개했던 저로서는 저는 이 요소가 좋은 개발자가 되고자 한다면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화력이 없으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소통의 부재와 팀 내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든 처음 만나거나 대면하면 어색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의 어색함을 못 견디고 평소에 하지도 않는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제 방식은 다릅니다. 저는 그 어색함을 즐깁니다. 처음 보는 사람끼리 할 이야기가 없고, 대화할 주제가 마땅히 없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천천히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정보를 얻는 과정을 즐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서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